

우리의 시대의 삶
2002 정기우품이





14

진정한 이름다음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미용사 이 경 숙

동네 여인네들의 사랑방, 진한 퍼머약 냄새를 풍기며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수건들을 두른 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남편과 아이들을 일터로 학교를 보내고 잠시나마 집안일을 뒤로한 채 말아올린 머리가 완성되는 동안 짜한 잔의 여유와 담소로 정을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곳. 과거 한때 금남(禁男)의 장소로만 알고 지내던 그 미용실내 지금은 남성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니 미용실의 모습도 세월따라 참 많이 변했다.



찾아가는 길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1
- 대중교통
원당역 ⇨ 8, 9번 버스 ⇨ 원당시장 하차
- 자가운전
자유로(행주북단IC) ⇨ 39번국도
- 약도



‘아줌마파마’ 라는 최고의 히트어로 시작해 이젠 최고의, 헤어스 타일리스트로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멋까지 알리는 이가 있으니 바로 20여년을 한결같이 미용업에 종사하며 자기개발은 물론 후진양 성 및 지역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경숙(37)이다.

이경숙씨가 미용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20 여년 전이다. 가난한 집안의 2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못한 양친을 대신해 생계를 꾸려야 했기에 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미용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녀의 미용사로서의 첫 출발 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시작됐지만 이후 서울 명동소재 마 샬미용실에서 고집스럽게 15년을 머무는 동안 오히려 남들보다 일 짝 자신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된 일속에서도 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용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로 남다른 열정 을 다해 자신을 채찍질 해왔 다. 그것이 오늘 날 이원장을 있게 한 것이다. 어찌보면 어 리숙해 보이기까지 하는 순한 모습의 이 원장. 그러나 미용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하는 15년을 한결같이 한곳에 서 일하는 끈기의 근성이 이루 어낸 결실이다. 이직률이 높 은 미용계에서 이원장의 이런 모습은 미용계에 입문하는 새 내기들에게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경영과 미용이 분리된 체계적인 미용실

오직 미용밖에 모르는 이 원장이 어려움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이원장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남편이자 매니저인 송재은(마샬경 미용실 대표)사장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또한 미용실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어 이원장이 미용기술 하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외조로써 아내를 격려하고 있다.

이것은 경영과 미용을 확실히 분리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이원장의 미용실이 고양시에서 경영 5년간 명성을 날리게 된 이유이리라. 이원장은 헤어에 관한 한 모든 것에 전문가이라고 자부한다. 헤어는 어느 하나만을 잘한다고 해서 완벽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없으므로 미용인이라면 고객의 머리상태 하나하나와 취향 심지어 성격까지 파악하여 어울리는 헤어를 완성할 수 있는 토털헤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원장의 생각이다.

이번 9기 미용기능장 역시 헤어 전문가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프로정신이 이원장을 미용기능장이 되게 하였



다. 미용기능장 시험을 준비할 때 이원장은 미용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에, 밤새워가며 연습을 했다. 그때도 남편인 송 사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기능장이 될 수 없었을거라며 은근히 남편에게 그 공을 돌리며 잉꼬부부임을 과시하는 이 원장의 얼굴에 행복함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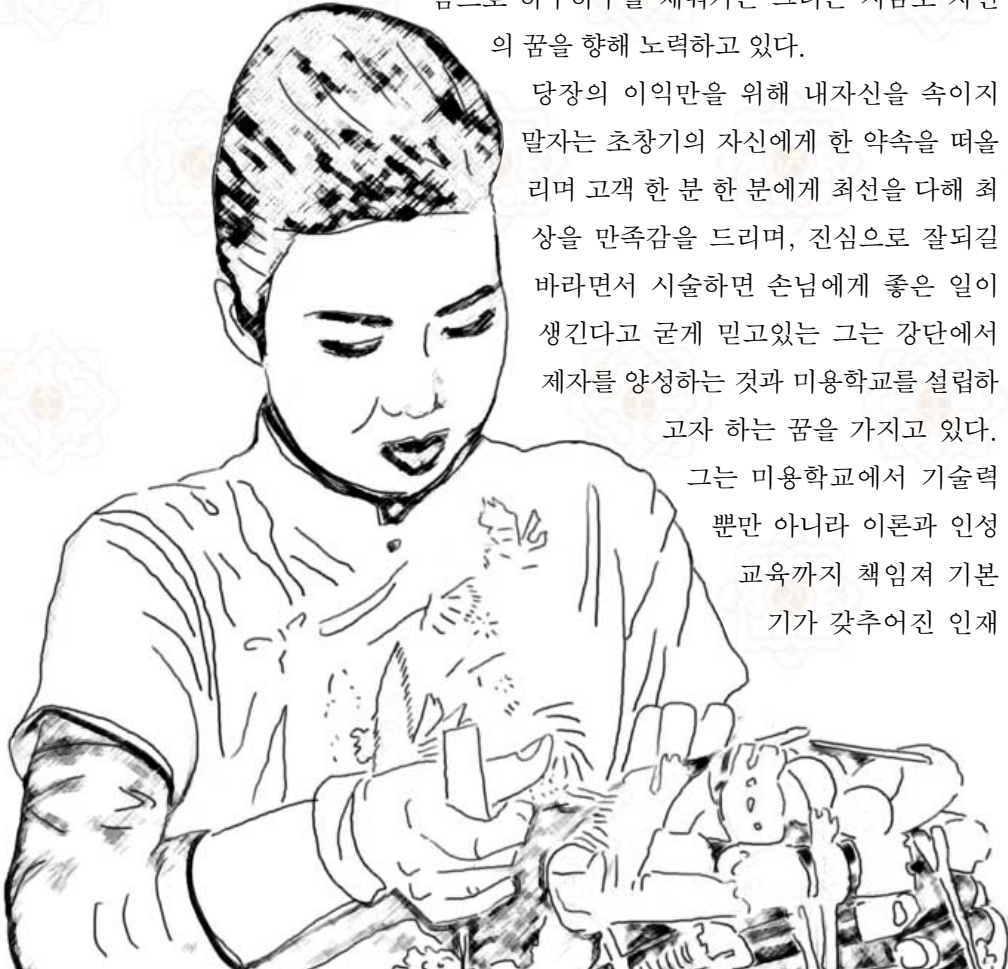
열린마음, 정보교류에 힘써...

“이젠 미용계도 오픈 된 마인드를 가지고 상호간에 정보교환, 교류를 통해 미용인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미용기능장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채찍질을 늦추지 않는 이경숙 원장. 자부심과 보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녀는 지금도 자신

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내자신을 속이지 말자는 초창기의 자신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며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 최선을 만족감을 드리며, 진심으로 잘되길 바라면서 시술하면 손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굳게 믿고있는 그는 강단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것과 미용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는 미용학교에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이론과 인성 교육까지 책임져 기본기가 갖추어진 인재



양성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또한 눈앞의 이익보다는 내실을 다져 수준 높은 인격함양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우리만의 장인정신으로 실력을 쌓아가면서 외국트렌드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우리만의 머리모양을 살려 우리 트렌드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

그녀의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의 모습은 언제나 여유롭고 느긋하다. 대부분이 예약손님들인 까닭이다. 또한, 그녀는 미용실을 위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오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부(富)가 목적이 아니라 신용과 고객만족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일상이 바쁜 고객들의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한 예약경영이고 그런 고객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미용에 대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면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닌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고객들의 머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경숙씨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이유 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겹게 자라온 어린시절을 항상 떠올리며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또한 한국복지재단과 결연을 맺고 뜻있는 지인들과 더불어 불우한 이웃의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과 국군병원 등을 찾아 헤어커트 봉사, 어려운 이들의 합동결혼식에 참가 신랑·신부의 화장 및 헤어 등을 도맡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귀감을 사고 있다. 이렇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 이경숙씨의 열정속에서 진정한 삶의 모습이 느껴진다.